

experience
Life As Mission

132nd, Summer, 2019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인터서브 30주년, 어떻게 축하할까? _ 조샘 대표
프렌즈를 만나다 _ 문혜정 정책이사
인터서브 필드 이야기 _ 제시백 선교사
인도에서 받은 선물 _ 박혜인 온트랙커

선교를 그리다.

이태원의 바라카 도서관이

PSP 훈련생들의 도움으로 포근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색의 벽화를 보니, 낯선 땅에 왔다는 긴장과 두려움에

꼭 닫혀 있던 이주민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 만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그려 나갈 선교적 삶을 응원합니다!!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어떻게 축하할까? _ 조샘 대표
- 06 보내심을 받은 가정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08 프렌즈를 만나다 _ 문혜정 정책이사
- 11 미션얼 패밀리 _ 노은희 매니저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2 인터서브 필드 _ 키르기스스탄
- 15 1%의 땅에서 _ 제시백 선교사
- 18 인도에서 받은 선물 _ 박혜인 온트랙커
- 22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_ 송기태 부대표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선교적 교회 컬럼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어떻게 축하할까?

조샘 대표

에베소 교회, 교회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 10A). 로마제국 제1의 상업도시인 에베소에 있던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에 관한 신학 논문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신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교회의 의미를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읽다 보면,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으니 에베소 제일교회였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에베소 순복음교회였을까요? 도시 전체의 변혁을 일으켰으니 에베소 개혁교회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교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에베소의 이 공동체는 그냥 “우리”라는 말로 표현된 교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됨을 축하하자!

무엇이 한 공동체를 “우리” 되게 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내가 속한 그룹에 자신의 가치를 연결하는 집단정체성 ^{social identity} 을 갖습니다. 우리 편이 커지고 유명해지면 웬지 나 자신이 올라간 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편이 아니면, 경쟁심을 갖고 적대까지 합니다. 세계 역사는 물론 교회사조차 이런 집단정체성이 가져온 비극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우리됨”은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과 다른 소수자로서 사는 선택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운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의 선택이 만드는 공감과 유대감이 타인이었던 개인들을 “우리”로 만듭니다. 인터서브의 공동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섬기려는 삶의 결단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파트너들뿐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로 한 프랜즈들과 스텝들도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온 또다른 “우리”들이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우리는 함께 모여 인터서브코리아의 30주년을 기념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을 위로하고, 신입파트너들과 가족들을 기뻐하고, 한국 사회의 만만치 않은 삶 가운데 재정을 아껴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프랜즈들과 스텝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중국 등 가난한 나라에서 파송된 파트너들을 도울 방안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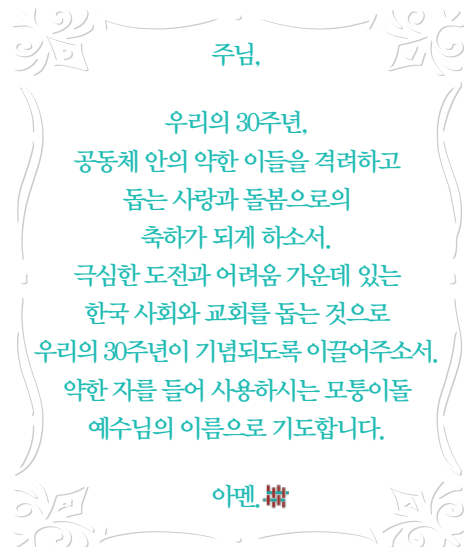
“선한 일”을 축하하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엡 2: 10B). 바울은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골 1: 20).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길” 원하십니다 (엡 1: 10). 인터서브의 역사의 시작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1852년 두 명의 영국 싱글 여성들이 인도 콜카타에 와서 제나라의 가난하고 약한 여성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터서브가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한국 최초로 여성 싱글 선교사로 전재옥 파트너가 파키스탄에 와서 인터서브의 전신이었던 BMMF 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인터서브코리아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평범한 이들이 주의 은혜로 화목과 통일의 역사에 쓰임 받음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일이며 인터서브코리아도 지난 30년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의 한국과 동북아는 마치 아이를 낳기 전 산모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새로운 통일과 동북아 상생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갈등과 분열과 신냉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로 화목과 통일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온 우리의 경험과 간증은 어쩌면 지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나누어지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의 30주년을 주님의 “선한 일”을 한국 교회와 나누어지는 것으로 축하 되면 어떨까요?

내년에 있을 인터서브코리아의 30주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파트너와 프랜즈들을 기도에 초청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가정

Missional family



에zell 공동체 수련회

지난 6월 5~6일에 경주에서 대구 동신교회 에zell 공동체의 수련회에 강사로 함께 했다. 에zell 공동체는 동신교회의 30대로 구성된 젊은 가정들 모임이다. 이 날도 젊은 부부들이 유아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자녀들과 참가했다. 에zell 공동체는 결혼 후 이어지는 젊은 가정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참으로 훌륭하고 꼭 필요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마다 이런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수련회를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믿는 가정으로서의 기초를 잘 닦아 왔는데, 이제는 좀 더 선교적인 의미를 지닌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을 절실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미션이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두 개의 소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가정,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청사진이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왜곡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정을 해석했다. 두 번째는, “가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이 우리의 가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의 본 model 이라면 우리 가정들도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복도 받

만, 아브라함 가정이 갖는 미션, 즉 복을 전하는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동시에 가져야 함을 나누었다.

미션이 있는 가정의 의미

아담 가정에 에덴 동산을 돌보는 미션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돌보는 일을 위해 가정들을 세워주셨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셔서 구속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아브라함 가정의 선교적 존재의 역할을 의 righteousness 와 공도 justice 를 행하는 가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창 18:16-19).

선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존재들이나 하는 이슈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죄로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으로서의 본질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선교적인 사명은 죄와 우상숭배로 얼룩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성품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아브라함 가정의 선교적 삶은 사라가 죽었을 때 헛

사람들의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창 23:5).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애굽과 그랄 땅에서의 믿음 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랄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을 얻지 못해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후에 이삭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 아브라함 가정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선교적 가정’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세워가기”라는 엄청난 과제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의 과업은 일차적으로 교회들이 단순히 선교사들만 많이 파송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인 존재로 성숙해야 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선교적 가정’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셀 교회’가 작은 셀들로 모여진 교회인 것처럼, 선교적 교회도 선교적 가정들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선교는 가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하는 사역도 역시 가정에 대한 것이다. 전 세계의 가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복음은 선교의 대상들인 개인들을 포함한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아브라함 가정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선교의 기본 단위도 가정 단위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개인 전도에 너무 열중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처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행 16:16). 우리는 선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며 선교의 과업이 가정의 구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선교사 가정에 관한 것 때문이다. 선교는 선교사 부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선교사 가정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떤 행위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존재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에 의해 현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선교사 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 가정이 선교적 존재로서 세워지고 그 정체성이 현지인 가정들에 전해지는 것이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지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케어로 충분하지 않다. 한 가정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는다고 저절로 선교적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존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 가정으로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학문 분야가 심리학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와해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정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가정의 중요함을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세계 선교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과정이 개인 단위가 아닌 가정 단위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가정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복을 가진 존재로서 다른 가정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복음의 기초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송기태 부대표



프렌즈를 만나다

프렌즈는 인터서브 공동체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매일 평범한 삶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서브 프렌즈입니다.

문혜정 정책이사

문혜정 프렌즈는 남편 김은우 선생님과 함께 2005년 인터서브 선교사로 허입되었습니다. 2007년 키르기스스탄에 파송되어 오슈지역에서 문혜정 선생님은 한국어 사역과 디아코니아 사역을, 김은우 선생님은 치과 사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작은 모임 공간에 활기찬 대화의 소리가 들린다. 5명의 키르기스스탄 형제 자매들이 키르기스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인 선생님의 농담을 듣고 까르르 웃는다. 반가운 안부 인사와 삶의 나눔이 두 개의 언어로 자유롭게 공존한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곳, '러브 나그네'에서 문혜정 프렌즈를 만났다.

Q.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1999년 당시, 치과 의사였던 교회 대학부 선생님께서 치과 의료인들이 모이는 선교 모임에 반주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 모임에 오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Q. 키르기스스탄에서 하신 사역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 두 팀*을 살았는데, 첫 번째 팀은 열심히 밥을 해서 식탁의 교제를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 기간을 끝내며, 열심히 밥을 했던 그 시간을 '디아코니아(섬김) 사역'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기간에도 즐겁게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수사역과 신학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치과 전직원이 모이는 모임을 섬겼습니다. 모두가 여성이라 '금요여성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5년 매주 지속하다보니, 이 모임에 무슬림 자매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터 놓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결혼한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자매가 우리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갖게 되자, 우리가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서브 선교사는 3년을 주기로 안식년을 가집니다. 이 3년의 사역기간을 '팀 Term'이라고 부릅니다.)

Q. 재작년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올해 공식적으로 인터서브를 사임하셨어요. 선교사라는 직함을 내려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돌아와서 목회현장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다 해도 선교적 삶을 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은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기도 합니다.

Q. 그럼 지금은 파송단체였던 인터서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 늘 선교지에서 국제단체 소속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간이 가도 인터서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조샘 대표님께서 이사로 제안해주셔서 현재 정책이사로 한국 인터서브를 섬기고 있습니다.

Q. 키르기스스탄 제자들과 '러브 나그네'를 시작하게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 귀국하고 보니, 나에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한국에 정부 초청장학생으로 와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8년 2월부터 연 지교회를 기반으로 '러브 나그네'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만나 자기들만의 언어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고향사람들을 만나 힘든 타향살이에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Q '러브 나그네' 사역의 방향성과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시작은 했고,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유학생이라는 특수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요.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유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커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재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작부터 늘 내 삶의 모토인 '디아코니아'를 생각했어요.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디아코니아입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두고 봐야겠

어요.

Q.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러브 나그네'는 모임의 이름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주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맛집을 가거나 우리집에서 현지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나눔 가운데 빠뜨리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인데, 감사한 것에 대한 나눔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눔을 풍성하게 합니다.

Q. 10년을 넘게 선교사의 삶을 사셨고 현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큰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선교지의 삶을 맛보았고, 거기서 누린 복과 은혜가 너무 큼니다. 감사한 것은 남편과 내가 지향하는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러브 나그네'를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Q. 선생님께 선교적 삶이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



에필로그

나그네를 만나다.

일주일 내내 한국어로 시름하다가 고국어로 마음껏 대화한다.

타향민의 서글픈 해방감과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들의 긴장감도 함께 감돈다.

이들은 왜 한국에 왔을까? 이 '러브 나그네'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질문해보았다.



타자굴 이화여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타자굴은 K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언니를 통해 한국어를 소개받았다. 한국에 온지 3년 차, 이제 언니보다 더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한다. **■**

“

러브 나그네게는 키르기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편해요. 2년 가까이 한국 사람들과 살았는데 문화 차이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러브 나그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모임이에요.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밀란 기술에 관심이 있는 예밀란은 친구들 모두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K팝과 드라마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

“

일주일 동안 한국어로만 공부하고 대화해요. 일주일에 한번 키르기스 말을 하고 편안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쏘사나 처음에는 언니가 억지로 세종학당에 보냈지만, 방과 후 한가한 시간 세종학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한다.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자막이나 더빙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쏘사나는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

“

러브 나그네 모임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고향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런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랍니다.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음껏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다니예르 한국어학과를 강권한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다니예르. 17명이 동기생들이 졸업할 때 5명만 남을 정도로 한국어 공부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도 너무 놀랍다. **■**

“

러브 나그네가 최고예요! 한국에서 생활할 때 러브 나그네 참여하는 것이 한국 생활 중 가장 좋고, 편해요!

”

노은희 매니저

(재정부)



안녕하세요. 재정부 매니저로 일하게 된 노은희입니다

광명시 하안동에서 남편, 딸(정운영, 28), 아들(정우창, 27)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공이 경제학이긴 했으나 회계업무는 전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도 온유하고 자상하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3월 자원봉사자로 인터서브를 처음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로 몇 달 있으면서 사무실 스탭 뿐 아니라, 만나뵙는 파트너들, 이사님들 어쩔 그리 한결같이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자상하신지요, 모든 분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가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 한 가운데 자리잡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을 가진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북쪽), 타지키스탄(남쪽), 중국(동쪽) 및 우즈베키스탄(서쪽)과 경계를 이룹니다. 중앙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국토의 90%가 산으로 되어 있어 텐산 산맥이 북쪽을, 파미르 고원 경계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풍부한 다양성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중국에서 지중해로 가는 실크로드 Silk Road의 중요한 캐러밴 정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에 이어 이슬람이 8~12세기 사이에 침략하였고,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도 이어 키르기스스탄을 침략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니파 이슬람교와 러시아의 정교회가 대다수의 종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인구 6백만은 키르기스, 우즈베크 족, 러시아인으로 구성되며, 카자흐스탄, 투르크멘, 위구르 등 소수 민족을 포함한 중국인 및 기타 투르크계 민족과 함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인 이들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환대합니다.

하지만, 국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2010년 종족 간 충돌은 투쟁과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상대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또 다른 혁명의 위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키르기스스탄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크지만, 이슬람 과격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수년간 많은 장,단기 사역자를 환영했으며, 그들은 인터넷의 삶과 공동체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역의 기회는 넘쳐납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단기 사역자인 온트랙커들이 오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미스테리이며, 일하며 살기에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취업 허가 및 비자 규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3 개월이 준비하기 가장 편한 시기입니다. 3개월 이상 지낼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스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일상 업무에 필요하므로 언어 학습은 선교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의 기회

1. 의사 (가정 의학) 및 간호사 - 비슈케크 (수도)

의료 전문가는 클리닉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사를 멘토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슈케크 외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을 위해 새로 오픈 한 호스피스 센터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 물리 치료사 및 직업 훈련사 - 비슈케크 / 카라콜

장애 아동의 평가와 치료 분야의 현지 근로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보호 시설이나 지역 사회에서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3. 교사 - 비슈케크

국제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생을 위한 생물 및 영어, 유치원 교사 및 특수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 신학교는 자격을 갖춘 성경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들은 다양한 분야의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4. 치과 위생사 및 기술자 - 비슈케크 및 주변 지역

지역 직원과 협력하여 치과 의사를 교육하고 훈련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5. **ESL교사** - 많은 지역에서 공인된 영어 교사, 특히 지방의 영어 교사를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OTer**는 도시 혹은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엔지니어링, 농업, 식품 안전, 카운셀링/심리학,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생활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CCOT에 최신 정보를 문의해주세요. **북**

인터서브는 온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사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31-778-7932, ontrack.isk@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번역: 이지혜 프렌즈





1%의 땅에서

제시백 파트너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열려 있고
관용적인 사회임과 동시에
2,000여개의 모스크가 있다.

이는 전체 학교 수보다
많은 숫자다.”

(Voice of America, 2015.11.07)

키르기스스탄은 추이주를 비롯하여 7개 주와 1,800여개의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마다 수십 개씩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1990년 고작 39개에 불과하던 것이 25년 만에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전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식 교육기관인 마드라쉬는 2017년 기준, 112개 소로 최소 6,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영향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쿠란 읽기, 라마단 금식 참여, 메카 방문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히잡, 니캅, 부르카를 쓰는 여성들도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무슬림은 86.8%에 이르며,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통계에 의하면 키르기스스탄 내에 거주하는 41개 민족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이 1%도 안 되는 민족이 30개이며, 그중 아예 복음화율이 0.00%인 민족도 19개나 됩니다.

이런 선교적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의 포커스는 다음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정교회

가정교회 모델은 키르기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의 후예로 손님 접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이나 러시아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가정 교회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차, 말씀, 진솔한 삶의 나눔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좋습니다. 섬기고 있는 노브이 자벳 교회에서 가정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속 깊은 나눔이 이어지다 보면 4~5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분을 영접하고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에 생명력을 더했습니다. 다음 해는 두 그룹, 또 그다음 해는 네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청년 그룹과 청소년 그룹도 가정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놀란과 아이굴이라는 목자가정은 “큰마음을 먹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이 너무 비좁고, 적은 벌이로 인해 풍성한 식탁을 대접할 수 없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섬김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저녁 식사는 아니지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 지역 사회 개발

5년 전,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현지 친구를 통해서 총타쉬라는 도시에서 한 시간 반 떨어진 시골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과 메림이라는 현지인 가정이 저희와 마음을 같이 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면장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마을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립 유치원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나라의 유치원 공공육이 무너지게 되면서 25~6년 동안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은 2~3살 되는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두고 일터로

가곤 합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그런 여력이 없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방문을 하다 보니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들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석탄, 재봉, 어린이 사업 등 지역의 여러 필요를 위해 참여하다 보니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문과는 다르게 기독교인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 후원자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유치원이 3년 반 만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개원식 이후 지금은 80여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3. 현지 리더십 세우기

이 땅과 교회의 주인은 현지인들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에 의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역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노브이 자벳 교회에서 리더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작은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자라가고 교회가 모양을 잡아가는 것은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 삶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임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잔의 찻잔을 기울이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친구처럼 고민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면 우리도 그들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 모임 참석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교회 행사를 위해 샐러드 한 접시 준비하는 헌신도 적었던 이들이 조금씩 멈춘 자리에서 자라가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작은 변화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빅투루 목사를 중심으로 2명의 중심 리더인 바글과 바이쉬가 심방과 전도, 설교와 기도 모임 그리고 금요 가정 모임들을 알차게 이끌어 갑니다. 지금은 성도들도 주일 개념이 잘 잡혀

가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비록 장소가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재정을 감당했고, 각 리더가 주제에 맞게 말씀을 잘 준비했으며, 6명의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동안 다져진 팀워크로 넉넉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섬김이들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1퍼센트 미만의 복음주의자라는 통계를 보면 실망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큰 열매를 보기에는 너무나 더디어 보입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이 다스리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yrgyzstan

INDIA

인도에서 받은 선물

인터서브 온트랙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4개월간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한국에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제가 의지하자면 의지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했던 것들을 두고 낯선 '인도'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몇 주 전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큐티를 하고, 찬양을 듣던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과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 후로는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떠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DBI ^{Delhi Bible Institute} 센터에서 인도 각지로부터 성경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공부를 같이하기도 하고, 교회 일을 하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해 준 친구들 덕에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럼가에서 판잣집을 짓고 사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아노카'라는 방과후 학교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5세~18세 정도 되는 15명 정도의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하고, 율동을 가르치기도 하며,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힌디어를 할 줄 모르고, 아이들은 힌디어밖에 할 줄 몰랐지만, 온갖 몸짓으로 소통을 했고,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꽤 먼 거리에 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며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친구들과 활동을 하고, 합창단을 함께 했습니다. 합창단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한 것이었는데, 지친 하루를 보내고 함께 모여 화음을 맞추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힐링이기도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약 1,800명의 사람 앞에 서보는 짜릿한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DBI친구들, 교회 청년들, 아이들, 인터서브 스태프들, 선교사님들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인도에 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집에 초청하기도 좋아하고, 여유를 가지고 함께 시간 보내길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친구이자 보호자, 가족이 되어주기를 자처하고 기뻐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주 정도는 한국인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살아



가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기도 했습니다. 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에는, 동네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티를 마시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집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선교사님 집을 비롯해 돌아가면서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어우러져 정말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센터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저만의 시간과 여유를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노가 담당 사모님을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꼭 맞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인도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막상 제가 한 일은 없고 도움만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단기로 와서는 적응하는데 만해도 모자란다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인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은 가~득 합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기억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도에 다녀온 여정은 이제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선물입니다. 

박혜인 온트렉커





가장 총체적인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 가을학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성경적관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적관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과업은 무엇인가?



문화적관점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전략적관점

미복음화 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4가지 관점을 통한 학습의 목표

▶ 하나님 영광의 확장과 [세계 복음화]

이러한 모든 것이 바탕이 될 때 자연스럽게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문화권의 선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수도권

서울월요 09.09 / 매주 월 7pm / 서현교회(2,6호선 합정역)

서울토요 08.31 / 매주 토 10am / 성도교회(1,4호선 서울역 / 4호선 화현역)

서울화요 09.10 / 매주 화 7pm / 사랑의교회(2호선 서초역)

삼 일 09.21 / 매주 토 9:30am / 삼일교회(4호선 숙대입구역) *

성 북 09.06 / 매주 금 7pm / 로템나무교회(6호선 안암역)

송 파 08.22 / 매주 목 7pm / 주님의교회(2호선 종합운동장역)

신반포 09.19 / 매주 목 7pm / 신반포교회(9호선 신반포역) *

온누리 9월 개강 예정 / 온누리교회(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

힌 돌 09.21 / 매주 일 시간 추후공지 / 힌돌교회(2호선 대림역) *

분당만나 09.26 / 매주 목 7pm / 분당만나교회(분당선 아탑역)

수원제일 09.07 / 매주 토 시간 추후공지 / 수원제일교회(팔달구 지동)

시온소 09.10 / 매주 화 7pm / 시온소교회(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인천부천 09.17 / 매주 화 7pm / 장소추후공지

군 포 9월 개강 예정 / 세린장로교회(산본동) *

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대전연합 9월 개강 예정 / 대전중앙교회(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대전대흥 9월 개강 예정 / 대전대흥침례교회(중구 오류동) *

두란노감리 9월 개강 예정 / 두란노감리교회(대전 유성구 지족동)

춘 천 09.21 / 시간 추후 공지 / 춘천순복음교회(동면 만천리)

원 주 09.23 / 매주 월 7pm /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천 안 09.22 / 시간 추후공지 / 천안여명교회(1호선 쌍용역)

광 주 9월 개강 예정 / 광주양림교회(남구 양림동)

부산대청 08.31 / 매주 토 3pm / 부산대청교회(부산 1호선 두산역)

* 표시는 해당 교인만 등록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 일산, 세종, 익산, 전주, 울산, 포항 등지에서 개설 예정입니다.

집중훈련과정

2020.01.28(화) ~ 02.01(토) /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수원 영통)

개강정보 및 온라인신청 www.psp.or.kr

미션파트너스 www.missionpartners.kr / 02-889-6400 /  미션파트너스 퍼스펙티브스

미셔널 BOOK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딘 플레밍 저
한화룡 옮김
도서출판 대서, 2017

딘 플레밍은 미국 캔자스주 미드아메리카 나사렛 대학교의 신약학 및 선교학 교수이다.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아시아와 유럽에서 교육 사역 분야의 선교사로 활동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선교의 접근에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경학자들은 종종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본문의 역사적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선교적인 관점이나 메시지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 또한 선교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성경에 접근한다. 이런 접근은 선교에 대한 성경의 관심을 제한된 수의 본문과 특별한 선교관으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저자는 선교적 missional 이라는 용어를 단지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광범위한 관점에서 선교는 모든 차원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에 기반을 둔다”(p.12).

저자는 조지 헨스버거의 관찰을 인용하여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그룹들의 성경 해석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흐름은 성경적 내러티브의 선교적 방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즉 하나님의 선교 및 선교에 참여하도록 보냄 받는 백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흐름은 성경의 선교적 목적을 강조한다. 성경의 각 책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활성화시키는지 강조한다. 이런 두 흐름의 초점은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 기능에 맞추어져 있다. 세 번째 흐름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선교적 위치와 그들이 그 본문에 가지고 오는 선교적 질문을 강조한다. 네 번째 흐름은, 다른 문화 및 사회적 상황들에 선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두 가지 확신에 기초하여 신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약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증언이며, 둘째, 신약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다. 전자의 전제 때문에 성경을 의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교의 관점으로 읽게 된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을 때 더 제대로 성경을 읽게 된다고 확언한다. 후자의 관점은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일도 선교적이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우리가 성경을 뜨거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신 목적에 충실할 때에만 가능하다. 플레밍의 책이 신약을 뜨거운 가슴으로 읽게 하는 길에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32호
2019 SUMM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19년 여름호 통권 132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19. 6. 26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